

또 ‘AI 거품론’ 쓰나미… 가상자산 등 위험회피 심리 확산

AI, 천문학적 투자에도 수익성 의문
반도체 대형주 직격… 급락 이어져
비트코인 한 때 8만 6000달러 붕괴

16일 코스피는 2.24% 급락해 3999.13에 마감했다. 10거래일 만에 4000선이 무너진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각각 1.91%, 4.33% 급락했다. 닛케이 225 지수(닛케이평균주가)도 1.56% 하락했고, 홍콩 항셱 지수와 중국 상해종합 지수도 각각 1% 넘게 떨어졌다.

이날 아시아 증시 급락세의 ‘트리거’는 인공지능(AI) 거품 우려였다. 브로드컴의 호크 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주 실적 발표 후 가진 설명회에서 “1분기 비 AI 매출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변동이 없다”면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AI 매출이 비 AI 매출보다 총마진이 더 작다”고 밝히자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시장 전반에서 주식, 가상 자산 등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가 후퇴했다. 가상 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15일(현지시간) 한 때 8만6000달러 선이 붕괴됐다.

◆ 다시 점화한 거품론

AI 거품론은 2022년 말 챗GPT의 등장으로 AI 붐이 시작될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빅테크들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어지면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AI를 주도하는 미국 테크 그룹에 연계된 신용부도스와프(CDS)의 거래량이 올해 9월 초부터 최근까지 약 90%가 급증했다고 파생금



코스피가 전 거래일(4090.59)보다 91.46포인트(2.24%) 내린 3999.13에 장을 마친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종가가 보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938.83)보다 22.72포인트(2.42%) 하락한 916.11에 거래를 종료,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71.0원)보다 6.0원 오른 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융상품 청산기관 DTCC의 자료를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CDS는 기업이 부도를 냈을 때 돈을 지급하는 금융 상품으로, 업황 악화 위험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한다.

이번 CDS 거래량 증가는 특히 데이터센터 등 AI 설비 투자로 수십억달러의 부채를 조달한 클라우드(전산자원 대역) 서비스 업체 오라클과 코어위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메타플랫폼(메타)도 올해 10월 AI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30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뒤 관련 CDS 거래가 대폭 늘었다고 FT는 전했다.

주요 테크 기업에 연계된 CDS는 AI 낙관론이 대세였던 올해 초엔 수요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주요 업체들이 거금을 들여 AI 연산용 반도체를 사들이고 데이터센터 증설을 단행하면서 신용 위험 우려로 CDS의 인기가 커지기 시작했다.

현재 메타, 아마존, 알파벳(구글 운영사), 오라클 등 4개사가 올해 가을 AI 프로젝트를 위해 융통한 자금은 880억달러(약 129조7000억원)에 달한다. JP모건은 이런 투자 적격 등급의 기업들이 조달하는 AI 관련 자금이 2030년경에는 1조 5000억달러(약 2210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한다.

천문학적 투자에도 성과는 적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컨설팅 회사 ‘테네오’가 매출 10억달러가 넘는 상장사 최고경영자(CEO) 3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CEO들은 현재 진행 중인 AI 프로젝트가운데 비용을 웃도는 수익을 낸 사례가 절반에 못 미친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올 한 해 AI 관련 제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보안, 법률, 인사 등에서 AI 적용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 “거품은 절대 오지 않아”vs “AI 거품엔 면역 없다”

국내에서 거품론을 말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AI 거품론에 대해 “절대 오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배 총리는 “우리나라가 지금의 투자를 사업적·연구성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잠재 경제 성장률을 3% 이상 높인다면 AI 투자는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에만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반면 미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부회장 대니얼 핀토는 지난날 한 연설에서 “아마도 AI 부문에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 조정은 해당 분야의 다른 부분과 S&P500 지수,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높은 가

치 평가를 정당화하려면 특정 수준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생산성 향상이 되더라도 시장이 현재 가격에 반영하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도 AI 거품론을 거론했다. 그는 영국 BBC 인터뷰에서 “인터넷 산업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분명히 과도한 투자가 많이 있었고 AI도 마찬가지로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AI 거품 붕괴 시) 면역이 있을 회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 대형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B of A) 설문에 따르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AI 거품을 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잠재적 위험으로 꼽기도 했다.

한국증시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탄탄하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 코스피 전망치로 5000 수준을 제시했다.

그 근거로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설비투자,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실적/수출 모멘텀 개선, 기업 거버넌스 개혁 등이 거론됐다. 특히 2026~27년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이 집중 투자하는 AI 데이터센터가 많이 지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고대역폭 메모리(HBM)뿐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변압기, 전력기기, 냉각기 등 공급망이 전반적으로 부스팅되면서 증시에 좋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美 AI 실적주 ‘흔들’… 버블붕괴 vs 저가매수

해외주식 Click

순매수 1위 SOXL… 4억67만달러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10위권 진입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인공지능(AI) 관련 종목과 ETF를 거침없이 쓸어담았다.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이후 급락하는 등 월가에서 ‘AI 패니 셀’ 우려가 불거졌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조정이 아닌 매수 기회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디

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배 ETF(SOXL)로, 순매수 규모는 4억67만달러(약 5889억원)에 달했다.

순매수 2위는 엔비디아로 2억2840만달러(약 3357억원)가 유입됐다. 엔비디아는 최근 AI 관련주 전반의 조정 국면에서도 대표 종목으로서 매수세가 이어졌다. 3위에는 알파벳 클래스 A가 2억 126만달러(약 2958억원) 순매수되며 이름을 올렸다.

나스닥100지수관련 상품인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도 7333만달러(약 1078억원)가 유입되며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개별 종목을 가리기 어려운 국면에서 AI 비중이 높은 대표 지수에 베팅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적 발표 이후 급락한 종목에도 매수세는 이어졌다. 오라클은 같은 기간 1억 1767만달러(약 1731억원) 순매수됐다. 오라클은 실적 발표 이후 매출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며 주가가 하루 만에 10% 이상 급락했지만,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이다. 브로드컴 역시 9402만달러(약 1382억원) 순매수되며 상위권에 올랐다. 브로드컴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전망을 제시했음에도 마진율 하락을 이유로 주가가 11% 넘게 빠지는 등 전형적인 ‘패니 셀’ 양상을 보였다.

이 외에도 AI와 자율주행 기대를 함께 반영한 레버리지 베팅이 이어졌다. 테슬라가 1억5102만달러(약 2220억원)

순매수되며 5위를 기록했고, 테슬라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TSLA 볼 2배 ETF(TSLI) 역시 1억 4934만달러(약 2194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이 같은 흐름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에도 이어졌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3.50~3.75%로 낮췄지만, 내년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시기와 정도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금리 인하에도 AI 실적주들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시장에서는 ‘AI 버블 붕괴’ 우려와 ‘조정 후 재도약’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월가의 AI 패니 셀이 과도한 반응인지, 추세 전환의 신호인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이미 다음 국면을 향한 베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테크TOP10 ETF 순자산 4조1000억 달성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 순자산이 4조 원을 넘어섰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 순자산은 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연초 이후에만 약 9500억원 증가한 규모다.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테크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한다. ETF 기초지수는 ‘Indxx US Tech Top 10 Index’로 현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등 세계 시장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들을 포함한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장기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핵심 성장 산업에 간편하게 분산 투자 가능하다.

이번 12월 정기변경을 통해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는 신규 종목 편입(팔란티어) 및 편출(티모바일)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미국 빅테크 산업의 변화와 트렌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상장 이후 미국 빅테크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며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는 현재 국내 최대 테마형 ETF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이세훈 “금융사, 정보보안 강화 팔 건어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정보보호협의회 정기총회

이 수석부원장, CISO 역할 강조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정보보안 강화를 최우선 경영 과제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잇따른 대형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외형 성장에 걸맞은 보안 역량 확보 없이는 금융산업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정보보호협의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사진)과 박상원 금융

보안원장,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약 210명이 참석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사의 보안 수준은 금융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정보보안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 아래, 외형 성장에 걸맞은 보안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책임 하에 정보보안을 최우선 경영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CISO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CISO는 IT·보안 리스크를 진단하고

조직 전반의 보안 문화를 주도하는 핵심 리더”라며 “권한과 역할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안 관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제로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정보자산을 빈틈없이 식별·점검하고, 취약점 발견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내 보안 업데이트, 데이터 백업, 퇴직자 계정 삭제 등 기본적인 보안 활동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